

종오리 사양관리 요령



일반사양관리

8. SM3종압 급이

종오리에 어떤 사료를 어떻게 급이하는가는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육성기 때 급여 수준을 조절하여 체중을 조절하고 몸체를 발달시켜 나간다. 1일령부터 정확한 조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산란율과 부화율에 악영향을 미친다.

사료형태

- *0~8주령 : 초기사료(펠릿)
- *8~20주령 : 육성사료(펠릿)
- *20~도태 : 종압사료(펠릿)

급이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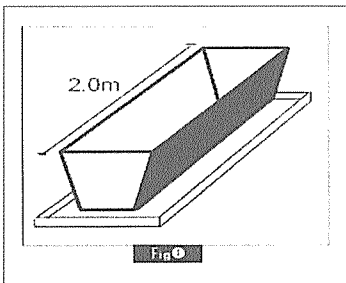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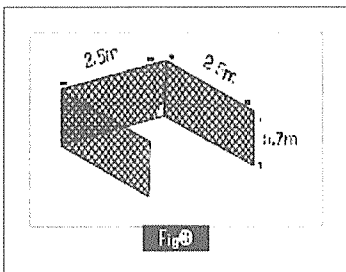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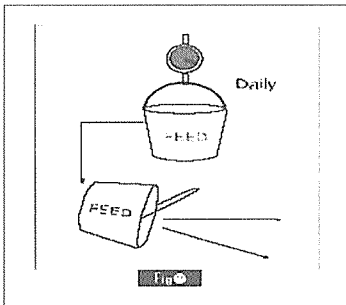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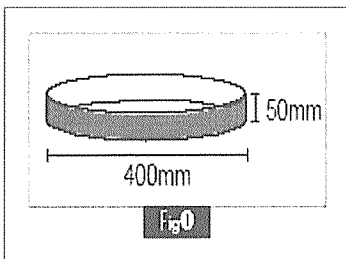
- 0~28일령기
- 설정된 사료량을 1일 수당 급여한다. 16일령이 지나면서부터 급여 수준을 증가해 가는데 16일령



이전기에는 보조 급이기에 나누어 급여를 해주지만 16일령 이후부터는 바닥에 뿌려준다. 오리들이 성장하여 사료섭취 경쟁이 심화될수록 뿌려주는 면적을 넓게 해준다.

- 28일령에서 18주령기

하루에 한번씩만 급여한다. 급여량은 평균체중에 따라 조절한다. 이 시기에는 사료제한이 심하므로 사료섭취 경쟁이 치열하다. 따라서 이 시기부터는 사료를 바닥에 넓게 뿌려주어 모든 오리들이 골고루 사료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오리들은 사료가 깔짚 바닥 깊숙이 있어도 잘 찾아 먹는다. 그러나 바닥이 너무 질은 경우 펠릿 사료가 뭉그러져 허비된다.

오리들은 사료가 깔짚 바닥 깊숙이 있어도 잘 찾아 먹는다. 그러나 바닥이 너무 질은 경우 펠릿 사료가 뭉그러져 허비된다.

- 18~22주령기

급여제한을 양적제한에서 섭취 시간적 제한으로 점차적

으로 바꾸어서 오리들이 하루 중 설정된 시간동안만 호퍼 사료에 접근하도록 한다.

- 22~도태시기

하루 중 설정된 시간동안만 급여한다. 급여시간은 종압군의 난중에 따라 조절한다. 급여시간은 압사내부의 온도 상황에 따라 6시간에서 24시간 범위로 한다.

급이기

- 0~21일령기

통을 이용하여 매일 급여량을 계근하고 보조급이기에 나누어 급여한다. 보조급이기 1개당 100수로 비치한다.

- 21일령에 18주령기

매일급여량은 측정하여 각 칸의 바닥에 뿌려준다. 이 시기에는 저울과 양동이 같은 통만 있으면 된다. (그림2) 매주 체중 측정을 위해 (그림3)과 같이 체중저울과 포획망이 필요하다.

- 18주령에서 도태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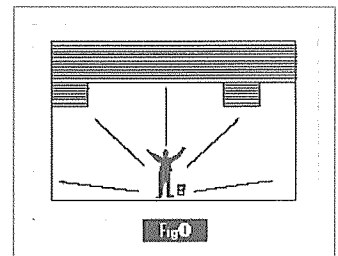
250수당 (그림4)와 같이 양쪽에서 먹을 수 있는 2m길이의 사료통 1개를 이용한다, 사료호퍼통에는 뚜껑을 덮을 수 있도록 하여 사료섭취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상세한 그림은 Technical Desk 참조.

급여 프로그램

- 0~28일령기
설정된 사료량을 매일 급여한다.

1일 급여량은 “28일령까지의 급여 프로그램”의 “Technical Data Sheet”에 잘





나타나 있다. 1일 급여량은 오리가 육성되는 기후 상황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

1일령은 오리가 도착하는 날이다. 급여 수준은 오리가 28일령까지 도달해야 하는 특정한 체중 수준에 맞게 설정된 것이다. 따라서 정확한 프로그램 적용이 중요하다.

각 칸 단위로 오리 일령에 맞는 수당 급여량에 총 현존 오리수를 곱하여 계근 급여한다.

처음 16일은 사료를 보조급이기에 바로 공급한다. 16일령부터는 보조 급이기 주변에 일부사료를 조금씩 뿌려주기 시작하여 21일령부터는 전량을 바닥에 뿌려준다.

일단 사료 전량을 바닥에 뿌려주기 시작하면 보조급이기는 압사에서 빼내준다.

매일 급여량을 계근하고 바닥에 뿌려주는 작업이 하루 중 가장 먼저 행해져야 한다.

오리는 바닥에 있는 펠릿사료를 매우 잘 찾아 먹으며 깔짚 깊숙이 있어도 빠짐없이 찾아먹는다.

사료는 가능하면 바닥에 넓게 뿌려서 모든 오리들이 한번에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림1) 이는 오리들이 균일하게 성장하게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 28일령에서 18주령기

이 시기에는 “기술자료” 항의 “SM3육성 차트”에 나타난 성장곡선에 따라 오리들을 육성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체중 컨트롤은 일일 사료 급여량 조절을 통해 이루어진다.

육성기간을 통해 목표체중 곡선에 근접시켜 육성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체중이 목표보다 상회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시산 시기에 영향을 주고 산란과 수정율에 영향을 미친다. 8주령기에 초기사료에서 육성사료로 전환한다.

체중측정

28일령 이후부터는 암컷과 수컷의 목표체중과

평균체중을 각각 비교하여 급여량을 결정한다.

적정한 샘플 체중측정을 위해서 매주 각 칸막이 당 암, 수 각각 전

체수의 10%씩 측정한다.(그림 2)

체중측정 후 당일 급여를 해준다.

암컷과 수컷의 체중측정 값을 계산하고 결과를 목표체중 그래프에 기록한다.

21일령부터는 체중 모니터링 시초점으로 측정을 실시하고 이 결과값에 따라 처음은 사료수준을 변경해주지 않는다.

다음 28일령에는 체중측정 결과값을 육성 차트에 기록하고 각 칸단위로 향후의 급여량을 결정해야 한다. 급여량 결정은 실제체중과 목표체중과의 차이 및 종압군의 실제체중 발달패턴을 보고 한다.

예를들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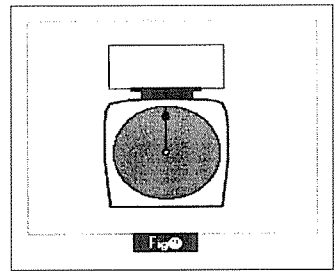
※만약 평균체중이 낮거나 또는 목표체중과 같은 비율로 발달해가는 경우 28일령 급여 수준을 35일령까지 유지한다.

※만약 평균체중이 목표체중보다 높거나 목표체중보다 빠른 비율로 성장해가는 경우 24일령 급여 수준을 35일령까지 유지한다.

※만약 평균체중이 목표체중과 같거나 목표체중과 동일한 비율로 성장해 가는 경우 26일령 급여 수준을 35일령까지 유지한다.

일단 상기 시준에 따라 수당 급여량을 결정하면 수당 급여량에 각 칸막이에 있는 오리 총수를 곱하여 칸막이당 총 급여량을 산출한다.

현존 수를 기준으로 매일 총 급여량을 산출하고 급여시에는 가능하면 넓게 사료를 뿌려주어 모든 오리들이 사료를 섭취하는 시간이 동일하게 한다.



35일령이 되는 아침에는 급이 전 암컷과 수컷 칸에서 각각 10%씩 샘플 체중측정을 실시한다.

암컷과 수컷의 평균체중을 종압군 단위로 계산한다.

만약 평균체중이 목표체중보다 낮거나 목표체중 발달비율로 성장해가지 않으면 비교적 상당한 양의 급여량을 증량해준다. (10~15kg)

만약 평균체중이 목표체중과 같거나 목표체중과 동일율로 발달해가는 경우 적은 양의 사료를 (5kg) 증량해 준다.

만약 평균체중이 목표체중보다 높거나 목표체중보다 빠른 속도로 발달해가는 경우 우선 체중측정을 다시 해보고 수당 급여량을 재확인한다. 모든 것이 정상인 경우 현급여량을 그대로 유지해 준다.

체중을 감소시키기 보다는 급여량 유지를 통해서서 목표체중에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

18주령기까지는 매주 칸막이 단위로 10%의 암, 수 샘플 체중측정을 실시한다.

참고 : 급여량 조절을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 다음 사항을 주시해야 한다.

※주위 온도가 변화되면 오리는 섭취하는 사료를 체온을 유지하는데 더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성장에 이용되는 사료량은 감소한다.

※사료영양수준이나 펠릿 품질은 오리가 실질적으로 섭취하는 사료영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에도 영향을 준다.

평균체중은 위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급여수준은 변화가 없다고 해도 달라질 수 있다.

육성초기 암컷 체중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종압군간의 체중격차분석

균일한 체중의 종압군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

하다. 균일도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개별적으로 체중을 측정하여 샘플체중측정 오리 중 80%가 평균체중의 $\pm 10\%$ 범위에 들어 가야 한다.

개별적인 샘플체중은 매주 위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개체간 체중격차가 많이 있는 경우(균일도가 낮은 경우) 개체 체중분리를 하여 대오리, 중오리, 소오리로 구분하여 다른 칸막이에서 육성해 주어야 한다.

급여량은 대오리군에는 감량하고 소오리군에는 증량해 주어서 평균체중이 정상으로 회복되도록 한다.

칸막이 단위로 오리수를 조정할 경우 칸막이당 수에 따라 총 급여량도 조절해 주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18~26주령기

이 시기부터는 급여량 컨트롤을 양에서 시간으로 바꾸어 준다.

18주령에 도달하면 250수 칸막이 당 1개의 사료통을 놓아준다. 이때 사료가 사료통에 없는 경우 사료를 추가해 준다. 사료통은 뚜껑을 두어 급여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18~29주령기에는 바닥에 정상적인 양의 사료를 뿌려준 후 사료통을 개방하여 오리들이 12시간 동안 사료통에서 사료를 섭취하게 한다.

다음날에는 급여량의 반 정도를 바닥에 뿌려주고 나머지는 사료통에서 먹게 하여 오리들을 사료통쪽으로 유인한다. 이 때에도 사료통에서 2시간 정도 섭취하게 한다.

해당 주말까지는 매일 약 2시간 동안 사료통에서 섭취하도록 한다.

차기 주부터는 급여시간을 다음과 같이 늘려나



| 주령 | 사료통 개방시간 |
|----|----------|
| 19 | 4시간 |
| 20 | 6시간 |
| 21 | 7시간 |
| 22 | 7시간 |
| 23 | 7시간 |
| 24 | 7시간 |
| 25 | 7시간 |
| 26 | 7시간 |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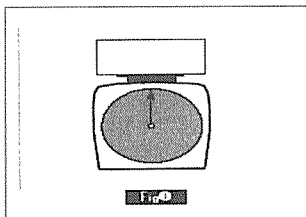
20주령기에 육성사료에서 산란사료로 바꾸어 준다.

- 20주령에서 도태시까지

온건기후 및 대륙성 기후 : 난중이 안정화될 때까지 급여시간을 7시간으로 유지해 간다. 이후 평균난중에 따라 급여시간을 1시간 늘려준다. 이러한 급여 관리의 목표는 헤비 / 미디엄중은 목표난중 90g, 슈퍼헤비중은 93g으로 끌어올려주기 위한 것이다.

열대기후 : 26주령부터는 주당 최대 2시간씩 연장해서 11시간이 될 때까지 연장한다. 이때 급여시간은 가능하면 이른 아침과 같이 하루 중 선선한 시간에 급여되도록 해야 한다. 난중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급여시간을 11시간으로 유지한다. 급여시간관리 목표는 헤비 /미디엄중은 난중 86g, 슈퍼헤비중은 89g까지 끌어올려주는 것이다.

기후가 매우 더운 지역에서는 24시간 급여도 해 줄 수 있다.



참고

1. 매주 100개의 샘플종란을 별크로 난중 측정하여 평균난중과 난중발달 추이를 파악한다.

2. 사료호퍼는 매 2주마다 한번씩 완전히 비워 지도록 급이하여 묵은 사료가 남지 않게 하고 항상 신선한 사료가 급여되도록 한다. 이때는 칸막이에 별도의 사료호퍼를 놓아주어 이로 인해 오리에게 급여제한이 되지 않도록 한다.

3. 펠릿사료 급여가 어려우면 매쉬사료를 공급해 줄 수도 있다. 그러나 급여를 양적으로 제한하는 시기에는(0~18주령) 매쉬사료는 반드시 트러프(사료통)에 급여해 주어야 한다. (그림2) 그리고 급여 전에 사료를 물과 혼합해서 페이스트(죽) 형태로 급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료허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사료통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며 충분한 수의 사료통을 각 칸막이에 비치해서 오리수당 150mm의 급이공간을 주어야 하고 오리들이 사료통의 양쪽에서 먹을 수 있는 형태이어야 한다.(그림3)

매쉬사료를 급여하는 경우 오리들의 사료섭취 효율성이 떨어져 개체간 사료섭취 격차가 커 결과적으로 종압군에서의 체중격차가 커지는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쉬사료를 급여하는 경우 격일급여를 해주어야 하는데 급여일에 1일 수당 급여량의 2배를 급여해 주는 것이다. 이로써 모든 오리들이 많은사료를 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배급일에는 비급여 하게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Technical Desk 참조.

